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4일 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호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제1200군부대 시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일 조선인민군 제120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머나먼 전연에 위치한 군부대에 도착하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훈련장감시대에 오르시여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훈련을 보시고 부대의 모든 군인들이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족쳐 부시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일당백의 용사들로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사납게 휘몰아 치는 제국주의광풍을 드세찬 혁명의 열풍으로 맞받아 치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쳐 가는 준엄한 계급투쟁의 전초선에는 당과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군인들이 서 있다고 하시면서 신성한 우리 조국을 감히 건드리려는 그 어떤 침략자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사생결단으로 싸워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리라는 억척 같은 투쟁정신을 지닌 이 위대한 힘을 당할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관하 중대지휘관들과 만나시여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이며 세포인 중대를 강화하는것은 전군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에서 전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후방시설들을 그쯘히 잘 갖추어 놓았을뿐아니라 후방공급사업을 짜고 들어 훌륭한 급식조건을 마련한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 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도 보아 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에게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용철이 동행하였다.

최근동정

1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제1200군부대 시찰

노작

2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2)

세기와 더불어

4 1장 3절 독립만세의 메아리(2)

칭송

6 해외동포도 우리 민족
6 지구촌의 환호
6 붉은 백두

8

한국민족민주전선

7 이북을 비방중상하면서 호전적인 망발을 하는 부시
8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자
9 구속학우 석방하라
9 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는 ≪국보법≫철폐하라

구국의 소리 뉴스 7, 8

조선중앙통신

10 주체 91년 2월 4일
11 위대한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풍모 (로동신문사설)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2 재일조선인운동의 계승과 새로운 발전을 위한 투쟁

13

아리랑뉴스

13 김대중정부는 미국에 강력 항의하라
13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1)
13 BBC방송, 미군의 양민학살 보도
14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개최 합의

운동강좌

15 전위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 (1)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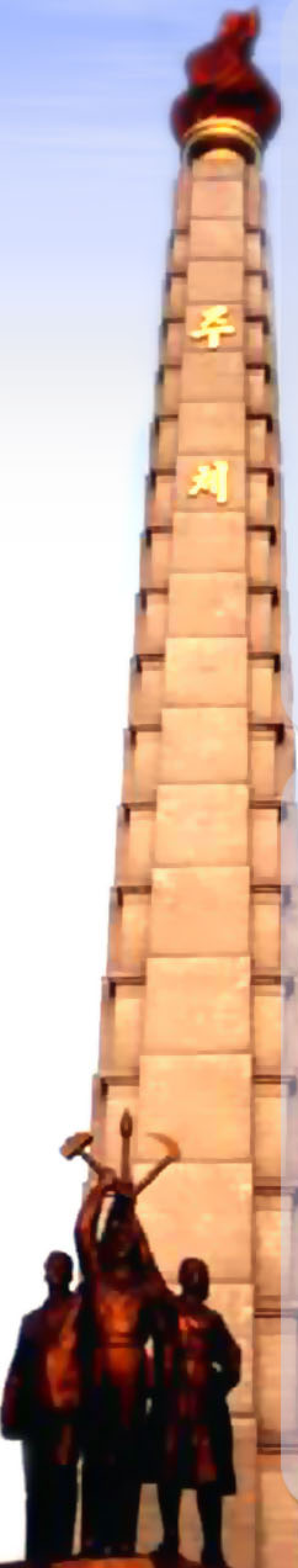
15 PDF총서 ≪21세기 태양≫

조국통일3대헌장

16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0대 시정방침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2)

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 주체61(1972)년 7월 14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에 동의하였지만 그들에게 진심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의사가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힘으로 뒤받침해야 한다고 하면서 ≪총력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떠들고 있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할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산악지대 비상훈련≫이요, ≪유격훈련≫이요, ≪도하작전훈련≫이요 하면서 여러 가지 군사연습을 련이어 벌여놓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소동은 우리를 자극하고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반공≫의 간판밑에 감행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중지하며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요구도 들이대야 합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인민들에게 민주주의 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며 남조선의 자본주의제도를 바꾸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남조선의 파쑈통치배들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지난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 인민들을 수많이 체포, 투옥하였으며 야당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남조선파쑈도당이 지난해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열린 것을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거기에 겁을 먹고 통일기운을 말살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남침위협≫이라는 것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번 천명하였고 더욱이 이번에 남북공동성명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약속한 것만큼 남조선당국자들은 마땅히 ≪남침위협≫을 구실로 하여 선포한 ≪비상사태≫를 철폐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관계없이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 한데 뭉치자는 것이므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파쑈악법들도 마땅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리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 요구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충실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구들을 반대하거나 거부할 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민족적 단합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며칠전에는 살인재판을 벌여놓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자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입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위정자들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의사가 없으며 ≪승공통일≫의 야망을 의연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줍니다. 그들이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이러한 검은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매달리고 있은 양면전술의 목적과 속심이 뻔하지만 우리는 인내성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어기는 현상에 대하여 강한 타격을 주는 한편 열려있는 협상의 대문을 더 크게 열고 모처럼 마련된 남북협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은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진척시켜 그것이 나라의 분열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북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협상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전까지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의 정치협상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이른바 ≪단계론≫을 주장하면서 우선 서신거래와 같은 인도적 교류를 실현하고 그 다음 경제, 문화 교류를 하며 그 다음 단계에서 남북정치협상을 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그들이 내세운 ≪단계론≫은 깨여졌으며 정치협상이 인도적 교류나 경제, 문화 교류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합의한대로 남북조절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하여 풀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에서는 언제나 민족공동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뒤로 미루는 원칙에서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정치협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남조선집권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점차적으로 남조선의 야당들과도 접촉하여 남북정치협상이 다무적인 협상으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북정치협상을 다무적인 협상으로 발전시켜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남조선위정자들이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을 제멋대로 어기거나 우롱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북경제교류와 체육, 문화 교류도 광범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여 북과 남사이에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내왕하며 접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남북사이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긴밀히 접촉하고 광범히 협상하여야 오래동안 격페되어 있은데로부터 생긴 불신과 오해를 풀고 이해를 넓혀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접촉하고 내왕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북과 남의 현실을 더 잘 알게 되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보다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여 조국의 자

➡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당의 자주적 평화통일노선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켜 전체 인민이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애국과 매국, 민족자주정신과 외세의존사상간의 심각한 투쟁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하여 합의해놓고도 ≪대화있는 대결≫을 떠들고 있은 조건에서 우리는 그들의 어떠한 도발과 대결정책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합니다. 경험은 민족의 통일열망이 고조되고 북과 남사이에 긴장완화의 징조가 보일 때마다 대결소동을 벌이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이 적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모든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고 하여 이제는 조국통일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긴장성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남북합작이 이루어지고 남북사이에 인사내왕과 경제, 문화 교류가 실현되면 많은 남조선사람들이 북반부에 들어오고 북반부사람들이 남조선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적들이 이런 기회에 공화국북반부에 부르죠아사상을 퍼뜨리고 자본주의제도를 세워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지금 공화국북반부의 전체인민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어 있다고 하여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사상이 침습할 수 없고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요소가 되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긴장성을 늦추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할 때에는 부르죠아사상이 침습할 수 있고 자본주의적요소가 되살아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자본주의제도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우월하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으며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에 참가한 남측대표들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자만도취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우월하지만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자면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 잘하여 우리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여 누가 와보아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려면 세계 광범한 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에 대하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합의내용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있은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말로는 남북공동성명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남북대화가 추진되고 조국통일기운이 높아지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제는 국제적으로 처하여있는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른바 ≪닉슨주의≫를 내놓고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끼리 싸우게 하고 조선에서는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는 전술을 쓰고 있으며 남조선위정자들에게 남북협상을 하되 현재의 분열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취하고 있은 태도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남북사이에 평화통일에 대한 회담이 진행된다고 해도 미국은 남조선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느니,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은 미군을 축감할 계획이 없다느니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인민들에게 우리 당의 자주적 평화통일노선을 널리 선전하며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려는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폭로 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벌여온 기만적인 ≪남침≫소동과 우리에 대한 악선전으로 하여 세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당의 자주적 평화통일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려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을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은 것이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의 간판을 들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은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외선전과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공동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들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철수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에 대해서도 주목을 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가 영원히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남조선에 다시 기여들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쫓겨나가게 되면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남조선에 다시 기여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야만적인 침략행위와 오늘 그들이 품고 있은 재침야망을 낱낱이 폭로 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세계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남조선에 다시 기여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 앞에 나서고 있은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당의 자주적 평화통일노선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켜 전체 인민이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

3. 독립만세의 메아리

1권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3. 독립만세의 메아리
4. 타향에서 타향으로
5. ≪압록강의 노래≫
6. 나의 어머니
7. 유산

아버지는 몹시 추운 날에 집을 떠났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었다. 못먹고 못입는 우리들한테는 추위도 큰 원쑤였다.

날씨가 좀 따스해지자 할머니는 조금 있으면 증손이의 생일이 되겠구나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생일때면 꽃이 피고 북쪽으로 간 아버지도 추운 고생을 덜하겠지만 춘궁기에 나의 생일을 어떻게 하면 섭섭치않게 해줄것인가 하는데서 오는 걱정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농량이 떨어지는 봄철이지만 내 생일이면 흰쌀밥 한그릇과 백하를 두고 지진 닭알을 밥상에 놓아 주군했다. 죽도 제대로 못먹는 우리 집 형편에서 닭알 한알이면 대단한 성찬이었다.

그러나 그해 봄에는 생일 같은데 별로 생각을 두게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체포사건이 나를 놀래운데다가 멀리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지 얼마 안되어 3.1인민봉기가 터졌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10년간의 야만적인 ≪무단통치≫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었다.

합병후 10년은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중세기적공포정치의 총검밑에서 우리 민족이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권리와 재부를 강탈당하고 끝없는 고통속에서 신음해온 수난의 시대, 암흑의 시대, 기아의 시대였다.

합병후 비밀결사운동과 독립운동, 애국문화계몽운동으로 부단히 힘을 축적하여온 우리 민족은 이 암흑의 시대, 수탈의 시대를 그대로 감수할 수가 없어 분연히 궐기한 것이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과 애국적인 교원, 학생들의 주도하에 3.1인민봉기는 면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갑신정변과 위정척사운동, 갑오농민전쟁, 애국문화계몽운동, 의병투쟁을 통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승화되어온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은 마침내 자주독립을 부르짖으며 화산처럼 분출하였다.

3.1인민봉기에 호응하여 나선 군중들

3월 1일 평양에서는 낮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장대재에 있는 숭덕녀학교 운동장에 모여들어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 다음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이었다. 시위대렬이 거리로 밀려나오자 수만명 군중이 이에 합세하였다.

만경대와 칠골 인민들도 대렬을 지어 평양으로 밀려갔다. 우리는 이른새벽에 조반을 지어 먹고 온 집안식구가 독립만세시위에 나섰다. 떠날 때 수백명에 불과했던 시위대렬이 나중에는 수천명으로 불어났다. 군중은 북과 징을 울리고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면서 보통문쪽으로 밀려갔다.

그때 여덟살이었던 나도 다 꿰진 신발을 신고 시위대렬에 끼여 만세를 부르면서 보통문앞까지 갔다. 성안을 향해 노도와 같이 밀려가는 어른들의 걸음을 나로서는 미처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덜거리는 신발짝이 거치장스러워 짚신을 벗어서 손에 들고 뛈박질로 대렬을 따라갔다. 어른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 나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

적들은 기마경찰대와 군대들까지 동원시켜 도처에서 군중에게 칼을 휘두르고 총탄을 마구 퍼부었다.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군중은 두려움을 모르고 원쑤들과 육탄으로 대항하였다. 보통문앞에서도 치렬한 육박전이 벌어졌다.

이날은 내가 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처음으로 본날이며 우리 민족의 류혈을 처음으로 목격한 날이였다. 어린 나의 가슴도 분노로 끓어번졌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사람들은 홰불을 들고 만경봉에 올라가 또다시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양철통까지 두드리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런 투쟁이 여러날 계속되었다. 나도 형복고모와 함께 어머니를 따라 만경봉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며 밤늦게까지 있다가 내려오군 하였다. 어머니는 군중들이 마실 물과 홰불로 쓸 겨릅대를 나르느라고 바쁘게 보내였다.

서울에서는 고종의 장례식을 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수십만명의 군중이 결사적인 시위를 벌이었다.

총독 하세가와는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룡산주둔 20사단무력까지 동원하였다. 놈들은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면서 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서울거리도 삽시간에 피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앞대렬이 쓰러지면 그 뒤대렬이, 뒤대렬이 쓰러지면 또 그다음 대렬이 앞장에 나서면서 전진하였다.

다른 지방의 인민들도 총칼로 시위군중을 탄압하는 적들의 만행에 굴하지 않고 피를 흘리면서 영웅적으로 싸웠다.

나어린 한 녀학생은 국기를 들었던 바른팔을 놈들의 칼에 잘리자 왼손에 국기를 바꿔쥐였고 왼팔마저 떨어져 더는 움직일수 없는 순간까지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를 불러 일제군경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서울과 평양의 시위를 발단으로 봉기는 3월중순에 이르러 전국의 13개 도를 모두 휩쓸고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그때 당시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들은 직업, 신앙, 남녀로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이 봉기에 참가하였다.

봉건도덕에 억눌려 문밖출입조차 삼가하던 려염집 아낙네들과 천민중 천민이라는 대접을 받던 기생들까지도 대오를 뭇고 시위에 떨쳐나섰다.

봉기가 일어난후 한두달은 온 나라가 독립만세소리로 진동하였다. 그러다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부터 점차 기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몇 달동안 만세를 부르며 기세를 울리면 적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물러갈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것은 망상이었다. 그런 정도의 반항때문에 일제가 선뜻 조선을 내놓을리 만무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해서 큰 전쟁만 하여도 세차례나 하였다.

벌써 400년전에 풍신수길의 부하들인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 우리 나라 땅에 불을 질렀다. 그것을 ≪임진왜란≫이라고 하였다.

19세기중엽에 이르러 이른바 ≪명치유신≫으로써 개화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일본지배층에서 맨먼저 들고나온 것이 ≪정한론≫이었다. ≪정한론≫은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의 위력을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일본군국주의집단의 침략적 주장이었다.

≪정한론≫은 일본정계와 군부내의 의견불일치로 그 당시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정한론≫자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국내전쟁을 반년이상이나 벌이었다.

이처럼 천황정부를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반란을 일으킨 ≪정한론≫자들의 우두머리 사이고 다까모리의 동상이 지금도 일본에 버젓이 서있다고 한다.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하여 청나라와도 전쟁을 하고 로씨야와도 전쟁을 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이들을 뒤에서 받쳐주었다.

일본군벌이 얼마나 독한가 하는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로일전쟁당시 려순전투를 지휘한 것은 노기였다. 그가 203고지를 점령할 때 산꼭대기까지 시체로 사닥다리를 쌓고 올라갔다. 려순의 백옥산 사당에는 그때 죽은 사람들가운데서 일부만 묻었는데 무려 2만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희생을 내고 전쟁을 이기기는 하였지만 다 먹는다던 씨비리도 만주도 먹지를 못했다. 애매하게 속아서 과부가 되고 고아로 된 일본사람들이 속이 좋지 않아서 노기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부두로 모여들었다. 행패라도 하자는 판이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는 노기의 가슴우에 세개의 유골상자가 드리워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노기자신도 그 싸움에서 제 자식 셋을 다 죽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

일제에 의해 학살된 시위참가자들

에서 일본강점자들이 조선을 호락호락 내놓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3.1운동을 지도한 상층인물들은 이와 같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우리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부합되지 않게 처음부터 운동의 성격을 비폭력적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들은 운동이 그이상 확대되어 민중이 주도하는 대중적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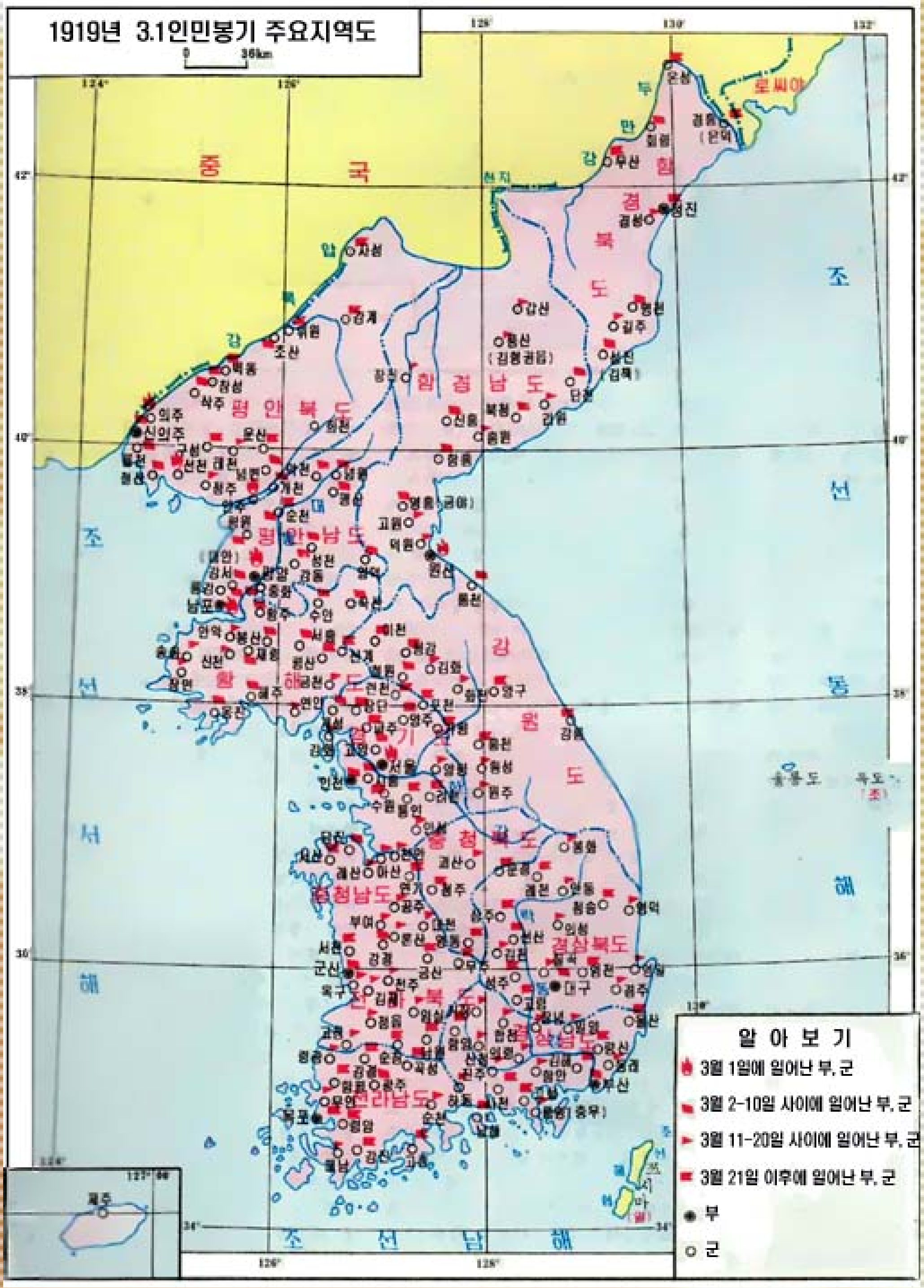
지어 민족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청원≫의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해결해보려고 하였다. 윌슨의 ≪민족자결론≫이 세상에 나오자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대표들에 의해 빠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이 결정될수도 있다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가지고 구차스런 청원운동을 벌이었다. 김규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독립청원서≫를 들고 렬강대표들의 숙소를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애원도 하였다.

그러나 협상국의 대표들은 어떻게 하면 분배몫을 더 많이 찾아먹겠는가 하는데만 머리를 쓰면서 조선문제 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원래 민족주의운동의 상층부가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기대를 가진 것부터가 오산이었다. ≪민족자결론≫은 미제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력을 막고 세계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내놓은 위선적구호였다. 미제국주자들은 ≪민족자결≫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다민족국가인 쏘련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식민지약소국가 인민들이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단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리시키는 한편 전패국들을 희생시켜 그 령토를 차지해보려고 획책하였다.

20세기초엽에 벌써 ≪가쯔라-타프트협정≫으로 일본의 조선침략을 ≪승인≫한 미제가 조선의 독립을 지원할리 만무하였다. 력사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동정하고 약한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한다. 한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세기와 세대를 거쳐 이미 력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이다.

고종황제는 이미 로일전쟁때와 포츠마스강화회담때에 미국에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전쟁을 폭로하고 조선의 독립유지에 협조해줄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로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전후처리문제를 토의하는 포츠마스강화회담에서는 회담결과가 일본에 유리해지도록 백방으로 도와주었다. 루즈벨트대통령은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리유로 고종황제의 밀서를 외면하였다.



고종은 헤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다시 밀사들을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비법성을 선포하고 세계의 정의와 인도주의에 호소하여 국권을 보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각국 대표들의 랭담한 반응으로 하여 회의앞으로 보내는 황제의 편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으며 렬강들의 동정을 호소하는 밀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걸음마다 좌절의 쓴맛을 보았다. 고종은 일제의 압력으로 밀사파견의 책임을 지고 순종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헤그밀사사건은 봉건통치배들의 뿌리깊은 사대의식을 잡아흔드는 하나의 힘있는 경종이였다. 만국평화회의장을 붉게 물들인 리준의 피는 후대들에게 세계의 그 어떤 강대국도 조선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의 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경고해주었다.

빠리강화회의 대표단

민족주의운동의 상층부가 이 교훈을 명심하지 않고 또다시 미국과 ≪민족자결론≫에 기대를 건것은 그들의 머리에 숭미상대주의사상이 그만큼 뿌리깊이 남아있었기때문이었다.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그들의 힘을 빌어 국운을 타개해보려고 하였다. 이 버릇이 민족주의운동상층에도 그대로 이식되었다.

3.1인민봉기는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이 더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지도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를 주도한 지도자들의 계급적제한성은 그들이 일본의 식민지지배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통치질서를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자기 계급의 리익을 보장할 수 있는 약간의 양보를 받아내자는데 운동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후날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개량주의자로 굴러떨어지게 했거나 지어는 일제와 타협하면서 ≪자치≫를 부르짖게까지 한 사상적바탕으로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개량주의를 타파할만한 선진사상이 없었으며 그런 선진사상을 자기 계급의 지도리념으로 삼고 투쟁할만한 산업프로레타리아트의 대군이 없었다.

청소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아직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시대사상으로 정립하고 그 기치밑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묶어세울 사명을 지닌 자기의 당을 가지지 못하였다.

일제의 악정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나라의 인민대중이 참다운 투쟁의 진로를 찾고 자기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전위대를 가지려면 멀고도 험난한 길을 더 걸어야 하였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강력한 지도력량이 없이는 어떤 운동이든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수백만군중이 나라를 찾으려는 공통된 지향을 안고 항쟁의 거리로 달려나왔지만 로동계급의 령도,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은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할 수 없었고 통일적인 강령과 전투계획에 따라 전개될 수 없었다.

3.1인민봉기는 인민대중이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올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려나가야 하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사람들은 우리 인민이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이 봉기로 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일본강점자들은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3.1인민봉기가 있은 후부터 형식상으로나마 ≪무단통치≫와 ≪문화통치≫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시기는 종말을 고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비운의 조국강산을 뒤흔들며 세계만방에 울려가던 독립만세소리는 온 여름 내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만세소리는 나로 하여금 나이보다 일찍 철들게 하였다. 시위군중과 무장경찰의 격투로 불꽃을 일으키던 보통문앞거리에서 나의 세계관은 새로운 단계에로 도약하였다.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발돋움을 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 나의 유년시절은 벌써 끝났었다고 말할 수 있다.

3.1인민봉기는 나를 인민의 대오속에 세워주고 나의 망막에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상을 새겨준 첫 계기였다. 내 마음속에 우뢰가 되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던 독립만세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나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성을 두고 다함없는 자부심을 느끼군 하였다.

(내일 계속됩니다)

일화

해외동포도 우리 민족

1960년 10월 어느날 우리 나라 준민족형성에 관한 조선사강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강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학생들에게서 뜻밖의 질문이 제기되었다.

질문인즉 민족형성에 관한 고전의 명제에 따르면 언어, 지역, 경제생활의 공통성과 문화생활의 공통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성격의 공통성 등 네 가지 가운데서 어느 한가지만 빠져도 민족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 해외동포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때에 휴식종이 울려 질문에 대한 해명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수업을 끝냈다. 그리하여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에 자연히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 사학계에서는 선행고전의 명제에 교조적으로 대하면서 민족형성을 자본주의의 대두와 결부시켜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해방후에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의 논쟁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학우들의 논의를 주의깊이 듣고 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1910년대 유럽나라들의 현실에 기초하여 전개한 고전의 내용은 당시 그 나라 실정에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통일적인 자본주의적 민족시장이 형성되어야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민족이 형성되게 된다는 고전가들의 견해를 교조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조선민족은 근대자본주의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는 과정에 하나의 핏줄로 이어지고 같은 언어를 쓰는 공고한 사회적 집단으로 결합되었다고 밝히시었다.

그러시고는 지금 일부 학자들속에서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없는 황당한 소리라고 하시면서 민족문제는 고전에서가 아니라 우리 수령님의 노작에서 찾아야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영도자님께서는 이런 주체적 시각에 기초해서 민족의 기본징표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립하시었다.

민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됩니다. 민족은 핏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적 민족개념에 기초해서 그분께서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시었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한강토안에서 한핏줄을 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민족에 관한 주체적 시각에 따라 해외동포들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같은 조선민족입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동포들은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 못이겨 정든 고향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만큼 재일동포들이 지금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도 조선민족입니다.

민족문제에 대하여 이런 방향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과학이론적으로 보나 우리 혁명의 실천적 요구로 보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도 비록 이국의 하늘아래에서 살지만 한핏줄을 이어받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산설고 물설고 바람 거칠은 이국땅에서 조약돌처럼 버림받고 가랑잎처럼 굴러다니는 서글픈 인생을 사는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혈맥을 이어주고 그리운 조국을 안겨주고 따사로운 민족의 품에 품어주는 눈물겨웁도록 고맙고 감격스러운 위대한 사랑의 메아리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주신 귀국의 뱃길을 따라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기는 재일동포의 수가 해와 더불어 늘어갔고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민족의 넋으로 살고 민족을 위한 성업에 한몸 바치려고 애국의 길, 통일의 길에 떨쳐나서는 해외동포들의 대오가 늘어났다.

송시

붉은 백두

김남진

노을이 타는 천상에 섰다
기나긴 이 나라 역사 반만년
누가 그대를 흰산이라 했는가
내 넋도 물드는 해돋이 순간
백두는 타는듯 붉다
머리들어 바라보는 하늘
천폭만폭의 붉은기를 띄웠는가
살같이 산제비 내리꽂히는
연봉의 아아한 기암괴석들
번쩍이며 붉은 광채 뿜는다
흙도 돌도 눈도
점점이 하나같이 붉은 백두
천지 물도 쉿물같이 붉게 끓어
한라산을 옮겨 잠근대도
그만 붉은 산 되리라
빼앗기고 짓밟힌
백의민족의 넋을 일으켜
여기 휘날린 그 기폭으로 붉은 것인가
광복전에 흘린
선열들의 더운 피에 젖어 붉은 것인가
붉음은 애국이며 애족이어라
나라사랑 겨레사랑
온 세상으로 간직하신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그분을 닮아 백두는 붉다!
아, 백두만이 붉으랴
그대의 줄기줄기 한라에 내렸거늘
물들어 한모습으로
한라, 한라
우리의 한라도 붉어야 한다

흠모

지구촌의 환호

인류자주위업의 향도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맞으며 그분을 우러르는 세인들의 칭송의 메아리가 매우 높은데요.

그러한 포성은 세계 각국에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 경축준비위원회들이 수많이 결성된 것으로도 잘 알수 있습니다.

가이아나, 우간다, 민주콩고, 이짚트, 파키스탄, 스웨덴, 오스트리아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등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정일**영도자님 탄신절 경축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습니다.

경축준비위원회 결성식들에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인 예지와 지략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신 **김정일**영도자님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는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 가이아나 전국위원회위원장은 경축위원회 결성모임에서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가 세계 정계, 사회계, 출판보도계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금 세계 혁명적민중은 사회주의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김정일**각하께서 가르키는 데로 사회주의의 재생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분이시야 말로 21세기를 이끄실 향도자이시다. 라고 격정에 넘쳐 강조했습니다.

세인들의 이 같은 목소리는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태양의 빛발로 ***뿐 아니라 그분께서 계시어 21세기에도 인류자주화위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죠.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받들어 모시는 세계의 움직임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1월부터 2월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경축집회, 토론회, 독서회, 영화감상회, 강연회, 출판물 특간호 발행들의 다채로운 행사들을 연일 성대하게 진행한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간다에서는요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경축하는 경축행사들을 뜻깊게 벌였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을 망라하는 주체사상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토론회를 성대히 진행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즈음해 페루 파스코주이사회가 1월 17일 그분을 세계명인으로 추대한 것을 비롯해 세계각국에서 명인 추대 및 명예칭호 수여모임이 대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세인의 경모심은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 앞에 쌓으신 그분의 공적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분의 탄신절을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뜻깊게 경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생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요, 일국의 영수의 탄신절을 온 세상이 이처럼 성대히 경축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 인, 용을 겸비하시고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 바치고 계시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만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겨레 모두의 대행운이고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이북을 비방중상하면서 호전적인 망발을 일삼는 부시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2월 2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시는 지난달 30일 ≪연두교서≫를 통해 이북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면서 **을 **이게 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했습니다. 그야말로 늑대가 양을 보고 악한이라고 비난하며 매를 드는 것 만치 어리석고 파렴치한 궤변이라 하겠습니다.

도대체 세계에 미국처럼 엄청나게 많은 대량살육무기를 가지고 남을 위협하는 나라가 어디 또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인류를 열번도 죽이고도 남을 약 2만개의 각종 핵탄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배비한 핵무기만도 1천여개나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생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고 그것과 핵탄을 날려보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운반수단을 갖고 이북을 비롯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항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북을 정치경제적으로뿐 아니라 힘으로 압살하려하면서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해왔습니다. 이 같은 책동은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욱 우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것도 그 1차적 목적이 바로 북침에 있는 것입니다.

부시행정부는 **목적의 대테러전쟁을 확대하려하면서 다음번 공격목표가 이북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북에 대한 ****는 호전적 폭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북이 있을수 있는 미국의 공격에 대처할수 있는 필요한 무장장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며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자위적 권리라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북을 힘으로 압살하려하는 한편 북침전쟁위험을 부단히 조성해 이북으로 하여금 자위를 위한 국방력강화에 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을수 없게 해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을 주어 이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미국의 정당한 자위적 무력강화조치를 시비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를 비롯해 미국 호전광들이 있지도 않은 핵위협과 미사일위협설을 떠들며 이북을 헐뜯는 것은 저들에게 쏠리는 국민들의 증오에 찬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비롯한 북침전쟁책동을 합리화하며 이북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쟁의 원수, 평화의 원수이며 악한중의 악한이라는 것을 웅변합니다.

부시행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하며 내외민중의 요구대로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부시행정부가 내외민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끝내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반드시 값비싼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4일

한민전 상무위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발표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1월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절을 맞으며 진행된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민전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을 성대히 기념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절을 성대히 경축할데 관하여의 의제가 토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 기념준비위원회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절 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소망을 담아 올해 태양절과 2월의 명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90돌 기념월간≫으로 하고 2월 1일부터는 28일까지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절 경축월간≫으로 설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기간에 한민전 각급 조직들과 산하단체들에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구국의 소리≫방송, ≪구국전선 인터넷≫을 비롯한 한민전의 모든 선전물들을 기념 및 경축특집으로 발행하며 한민전 대표부들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독자적으로 조직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쟁광신자 부시의 한국행각을 항의하는 집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월 29일 전쟁광신자 부시의 한국행각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평통사공동대표 서경원씨는 미국이 구매를 강요하는 백억달러치에 달하는 100대의 ≪에프15≫전투기도입의 부당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것을 팔아먹기 위한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에서 채택된 성명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패권과 군수업체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평화를 유린하고 민중의 삶을 유린해온 부시의 무기강매의도는 미국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시커먼 장사속셈을 드러낸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한국의 군사장비, 많은 미국제 무기를 끌어들여 남북간 군사대결을 긴장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은 가뜩이나 난관에 처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민족통일과 민중생존권수호의 결정적 방해물인 부시의 방한을 결사반대하며 사대주의적인 국방부에 반민족적, 반민중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행한 이회창의 반통일적 사대매국행위를 규탄

충청총련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회창이 미국에서 한 반통일적 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해 1월 25일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이 미국에서 한 언동을 보면 이성을 잃었어도 너무하다싶을 정도라며 7천만 겨레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집권야욕에만 빠져있는 그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한국인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이야말로 반통일정신병자라며 이회창은 전민족의 분노가 이제는 용납못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은 더이상 민족의 분노를 사고 민족을 망신시키는 행위를 일삼지 말고 당장 머리숙여 사죄하고 자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은 애써 자신의 무덤을 파기보다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산골에 들어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더이상의 반통일적 행위는 자손대대 민족반역자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수치와 오욕만을 더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의 반통일, 반민족적 친미사대행위를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이회창의 범죄행위가 자신의 집권을 위해 판치고 있음을 전국민에게 폭로할 것이며 전민중과 함께 대학생들의 힘으로 그가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반드시 치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자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2월 1일~2일

6.15공동선언을 관철해 조국을 통일하자면 이 땅에 조상대대로 태를 묻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힘을 합쳐야하는거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제 민족은 주적이라고 하면서 적대시하고 반면에 우리 민족에게 온갖 고통과 재난을 덮씌우고 있는 대양 건너의 양키들과 공조를 떠드는 반민족반통일역적들이 있어서 민중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계 애국민중은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정초부터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바라고 있는 것은 다른 아닌 자주통일입니다. 자주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이익에 걸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진정한 통일의 길이라는 것은 온 겨레가 실지 터득한 신념입니다.

참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은 온 민족이 높이 들고 나가야할 자주통일선언이고 조국통일의 기치입니다.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의 길밖에 없습니다.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민족분열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자주의 원칙을 견지할때만이 진정한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민족분열의 길이고 망국의 길입니다. 민족자체의 힘을 믿지 않고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가는 것은 민족반역행위이고 매국행위입니다. 이같은 범죄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만고대죄입니다. 그런만큼 민족분열을 반대하고 통일을 열망하는 온 민중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과 호전분자들,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통일책동에 편승해서 북침전쟁연습과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책동들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등 최신예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각종 군사훈련을 매일과 같이 벌이고 있고 의연히 주적론을 운운하면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의 사례입니다. 오늘 외세와 야합하여 벌이고 있는 호전분자들과 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에 의해서 남북관계는 냉각상태에 이르고 한반도정세는 격화되어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외세와 그에 아부추종하는 호전분자들과 분열주의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들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무서운 참화와 재난이 씌여지게 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미국의 무모한 침략과 전쟁책동에 추종해서 그 하수인들이 남북공동선언이행을 훼방하고 극력 반대하면서 북침전쟁준비와 반통일책동에 획책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들의 범죄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은 더이상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여기에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구성원들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도전하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섬으로써 민족공조 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도록 하며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계층 민중은 외세에 아부추종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과 호전분자들, 반통일세력의 범죄적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고 민족의 공조를 실현해서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섬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4일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청년학생 통일일꾼대회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최로 ≪2002년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청년학생 통일일꾼전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성원들과 서총련, 경기남부총련, 충청총련, 남총련, 부경총련, 강총련, 제총협성원들과 전라북도 학생들, 수원 통일사랑청년회, 범청학련 남측본부후원회를 비롯한 5개 청년단체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지난해 평가와 올해 전망≫, ≪6.15공동선언이행의 경로≫, ≪일군혁신문제≫, ≪올해의 총적방향과 과제≫들이 토의됐습니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과 민족주체역량강화, 남북관계개선, 미국과의 대결전에서의 승리, 친미보수세력의 청산으로 6.15공동선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갈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대회에서는 2002년 범청학련 남측본부 새해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결의문은 6.15공동선언은 변함없는 우리의 기치이며 민족자주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요구이고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의문은 당국이 6.15공동선언의 자주정신에 걸맞게 망국적 외세의존을 집어던지고 민족공조로 선회해야하며 ≪주적론≫을 폐기하고 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문은 미일제국주의는 위기탈출구를 전쟁에서 찾고자 반테러를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반미반전투쟁의 불을 달고 미군을 몰아내는 투쟁에 총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문은 친미호전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며 대통령선거를 맞아 이자들을 결정적으로 몰락시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6.15공동선언으로 남북해외동포들의 전례없는 3자상봉과 단합이 실현된 지난해 성과를 발전시켜 올해에는 더 높은 급의 민족적 교류과 단결로 민족대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학우 석방하라

구국의 소리 / 주체 91년 1월 28일~29일

그럼 이번엔 한양대 서한영씨의 글 이어드립니다. ≪김도형학우를 즉시 석방하라≫.

새해 정초부터 당국의 학생운동탄압책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2년 1월 3일 새해 벽두에 보안수사대는 전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인 김도형남총련의장권한대행을 보안법에 걸어 강제연행하는 파쇼폭거를 자행했다. 당국의 이같은 행위는 지금 우리 남총련과 백만학우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도형학우는 전남대학교 학우들에 의해 당선된 부총학생회장으로 그리고 남총련의장권한대행으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헌신해온 열혈애국투사이다. 그런데 보안수사대는 그가 6.15공동선언정신을 받들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자고 외친 것을 트집잡아 철창속으로 끌어간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들고나가야할 21세기 통일이정표이며 그 이행에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 하기에 오늘 7천만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도형학우는 민족자주통일에로 향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통일의 선봉장이 되고자 전남대 부총학생회장으로써 전남대학우들을 이끌었고 또 남총련 제10기 의장인 최종은학우가 파쇼당국에 체포되자 남총련의장권한대행으로 선출되어 조직을 이끌어나갔다.

남총련을 비롯한 한총련학생들의 투쟁을 눈에든 가시처럼 여기던 당국은 이번에 보안수사대를 내몰아 김도형학우를 강제연행한 것이다.

당국이 새해 벽두에 김도형학우를 체포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올해에 어떻게 하나 학생운동을 원천적으로 말살하려는데 있다.

당국은 올해에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게임, 지방선거와 대선 등 이른바 4대행사를 계기로 정국의 안정을 꾀하려는데 선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경찰청이 올해 월드컵개최와 각종 선거를 앞두고 모든 집회 및 시위에 강경대응을 선포해 나선 것이라든가 당국이 노사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지금 사법당국은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애국의 일념으로 불타는 청년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회유와 기만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고 도형학우에 대한 체포를 **로 새해 벽두부터 청년학생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탄압작전에 열올렸다. 하지만 그 어떤 파쇼적 탄압으로써도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자주통일에로 향한 우리 청년학생들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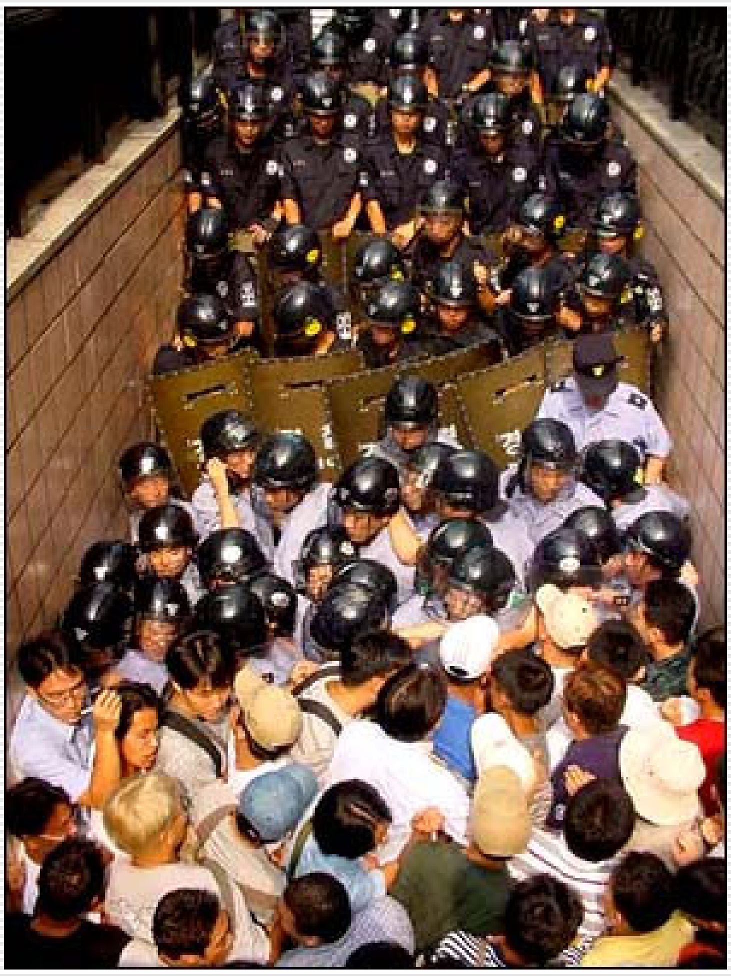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더욱 시퍼렇게 날이 서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 우리 청년학생들의 기질이다.

우리 백만청년학생들은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당국의 파쇼적 탄압과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올해에도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의 선봉장으로 우뚝 설 것이다.

당국은 6.15공동선언을 받들고 민주화와 민족자주통일에로 향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하며 이에 역행하는 온갖 파쇼적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는 대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전남대학교 2만학우와 백만청년학생들의 요구대로 김도형학우를 비롯한 구속학우 전원을 무조건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주장이 날카로운 서한영씨의 글,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선언이행 방해하는 ≪국보법≫철폐하라

조연택 / 구국전선 주체 91년 2월 1일

≪6.15공동선언이행은 ≪국가보안법≫철폐로부터!≫,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고 통일을 이룩하자!≫

이것은 반통일파쇼악법인 ≪국보법≫을 철폐하는 것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임을 자각한 우리 민중의 일치한 외침이다.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날로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열망에 칼질을 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을 가

로 막아 나서고 있다.

지금 정계, 사회계, 노동계, 종교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에 걸려 감옥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이른바 ≪민혁당≫사건, ≪서울민주노동자회≫사건 등 여러가지 사건들을 조작해 노동운동가들과 통일애국세력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체포처형했다.

남총련 의장 최종은군을 체포한데 이어 지난 1월 3일에는 10기 남총련 의장권한대행인 전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도형군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체포한 것 등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전민족이 단결하여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때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자≫고 외친 것이 어찌 이 추운 겨울 차거운 감옥에서 고생해야 할 죄로 된단 말인가.

민족대단결의 차단봉, 통일애국세력을 구속하는 족쇄, 매국과 반역의 방패로서의 ≪국가보안법≫은 무조건 즉시 철폐돼야 한다.

반인권의 상징이고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을 가로 막는 구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것은 실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없이는 진정한 민권도, 참된 민주주의도, 실질적인 민족화해와 통일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계민중은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서 철폐되는 날까지 투쟁해 나가야 한다.

그 어떤 엄혹한 추위도, 당국의 그 어떤 탄압도, 냉전수구세력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우리 민중의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중단시킬 수 없다.

각계 애국민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 사회,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 바쳐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1월 30일

김정일총비서, 여러 나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91(2002)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쿠웨이트국가 추장 자베르 알 아흐메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 타이왕국 국왕 부미볼 아둘리야데즈, 기네공화국 대통령 란사나 꽁떼,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무력총사령관 올루세군 오바산죠, 대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위대한 9월1일혁명의 지도자 모아메르 엘 가다피, 르완다공화국 대통령 뽈 까가메, 마로끄왕국 국왕 모하메드 6세, 수단공화국 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이 와드, 세이쉘공화국 대통령 프란스 알버트 레네,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국가수반, 적도기네민주당 창건자, 위원장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지부티공화국 대통령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흐, 꽁고공화국 대통령 데니 싸쑤 느게쏘, 꽁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죠제프 까빌라,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바라크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축전들에서 주체91(2002)년 새해에 즈음하여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고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시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쟈끄 디우프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 선전화들이 나왔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될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 선전화들이 나왔다.

선전화들에는 조선인민과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칭송, 시대의 지향과 념원이 뜨겁게 담겨져 있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만세≫의 구호가 웃부분에 새겨져 있으며 ≪경축 2.16≫,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라는 글발이 부각되여 있다.

선전화들가운데는 정일봉과 그 상공으로 터져 오르는 경축의 축포를 배경으로 **김정일**화를 그려 넣은 선전화와 백두산천지를 물들이는 빛발속에 태양의 꽃 **김정일**화를 아름답게 형상한 선전화가 있다.

선전화들에는 전시회가 주체91(2002)년 2월 13일부터 20일사이에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된다는것이 밝혀 져 있다.

전쟁시기 미제의 민간인학살만행 규탄
로동신문

≪로동신문≫2일부는 최근 영국의 비비씨방송에 의해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또다시 밝혀 진것과 관련하여 론평을 실었다.

신문은 이로써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로근리를 비롯한 가는 곳마다에서 감행한 인민대학살만행의 진상이 더욱 더 명백하게 밝혀 지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지금 미제는 더 이상 숨길 여지도 없이 드러난 사실앞에서도 사건진상해명을 회피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 나보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온갖 전횡을 일 삼고 있는 침략자 미제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을 드러내 보이는것이며 더우기는 앞으로도 조선민족에 대한 학살만행을 계속 감행하겠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시사하는것으로서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우리 겨레는 결단코 살인자 미제를 용납할수 없다.

침략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겨레가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하고 온민족이 핵참화의 재난을 들쓰게 된다.

침략자와는 한시도 함께 살수 없으며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한다.

미국인물들의 ≪북조선핵의혹≫설 규탄
민주조선

핵광증에 사로잡힌 미국의 일부 인물들은 우리 공화국이 ≪이미 1내지 2개의 핵폭탄을 제조했을것≫이라느니, 그 무슨 ≪속임수≫를 쓰고 있다느니 하는 따위의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한수 더 떠서 우리 공화국의 ≪핵문제≫를 국제군축회의의 마당에까지 들고 다니는 자들도 있다.

≪민주조선≫2일부는 이러한 사실을 평하면서 남들이 믿지 않을가봐 ≪중앙정보국의 정보자료≫라는 주석까지 달아 가며 ≪북조선핵의혹≫설을 펴는것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핵범인≫으로 몰아 부이기 위해 얼마나 모지름을 쓰고 있는가 하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을 중단시키는 등 막대한 전력손실을 보면서까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문이 발표된지 7년이 넘었지만 약속된 자기의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이 우리의 ≪핵문제≫를 운운하는 여기에는 흉악한 간계가 내포되여 있다.

미국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문제≫를 들고 나오는 리유는우리를 ≪핵범인≫으로 몰아 그것을 구실로 저들의 핵무력강화를 계속 추진시키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을 들씌울수 있는 대량살륙무기들을 철폐하는것은 물론 제 주제에 남에게 삿대질하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

80여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김정일화재배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세계도처에서 만발하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김정일**화가 세상에 나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80여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덕망에 매혹된 진보적인민들이 이 태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가꾸고 있다.

주체77(1988)년 경사로운 2월 16일을 맞으며 세상에 처음으로 태여난 **김정일**화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따라 평양에 있는 중앙식물원을 통하여 조선과 세계 각국에서 널리 보급, 재배되고 있다.

중국의 연길, 단동, 상해와 마다가스까르, 에티오피아 등에서 ≪**김정일**화온실≫들이 성황리에 개관되였으며 스톡홀름에서는 스웨리예, 핀란드, 노르웨이, 단마르크 화초애호가들과 전문가들로 ≪북유럽 **김정일**화협회≫가 조직되였고 몽골에서는 **김정일**화협회, 일본에서는 **김정일**화애호회들이 결성되였다.

끼르기즈스딴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끼르기즈스딴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1월 28일 비슈께크에서 진행된 결성식에서 한 보고에서 ≪스뜨로이메하니자찌야≫주식회사 사장은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며 끼르기즈스딴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구현해 나가는것은 자기들의 의무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빛내이고 계신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관철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해 올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끼르기즈스딴공산당 중앙위원회 1비서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태양절과 2월의 명절을 성대히 기념할것을 결정 ≪한민전≫ 확대회의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중앙위원회가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를 1월 30일에 발표하였다.

공보에 의하면 1월 27일 서울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성대히 기념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절을 성대히 경축할데 관하여≫의 의제가 토의되였다. 공보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기념준비위원회≫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절 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출하였다.

회의에서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소망을 담아 올해 태양절과 2월의 명절을 민족최대의 대명절로 뜻 깊게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1.태양절과 2월의 대명절을 맞으며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층 민중의 다함 없는 경모와 충성의 결의를 담은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의 편지와 축하문을 삼가 올린다.

2.태양절과 2월의 대명절을 민족최대, 인류공동의 명절로 가장 성대히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90돐 기념월간≫으로 하고 2월 1일부터 28일까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절 경축월간≫으로 한다.

3.기념 및 경축월간들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기념준비위원회≫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절 경축준비위원회≫, ≪한민전≫ 각급 조직들, 산하단체들에서 다양한 정치, 문화행사들을 조직진행한다.

4.≪구국의 소리≫방송, ≪구국전선≫인터네트를 비롯한 ≪한민전≫의 모든 선전물들을 기념 및 경축특집으로 발행한다.

5.≪한민전≫대표부들에서는 현지실정에 맞게 다양한 정치, 문화행사들을 독자적으로 조직진행한다.

위대한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풍모 (1)

로동신문 사설 주체 91년 2월 1일

우리 사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어버이로 모시고 군대와 인민이 혈연적뉴대로 굳게 맺어 진 하나의 대가정이다.

멀지 않아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 없는 충성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끓어 오르고 있다.

혁명의 령도자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군대와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위대한 어버이로 받들며 령도자와 군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회처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전면적으로 꽃 펴나는 우월한 사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여 나가는 보람찬 진군길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대풍모는 우리 사회주의의 무궁무진한 생명력과 **김정일**강성대국의 끝없이 밝은 전도에 대한 굳은 확신을 안겨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현실에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령도자와 전사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의 사고, 하나의 호흡,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 진 혈연적뉴대로 되고 있으며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모든 사회성원들의 관계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관계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생명력과 민족의 전도는 온 사회에 지배하는 정신도덕적풍모에 달려 있다.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며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굳게 맺어 진 사회,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적으로 굳게 결합된 나라와 민족은 어떤 시련과 풍파속에서도 무한한 생기와 활력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해 나가게 된다.

우리 사회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 숭고한 혁명도덕이 지배하는 가장 공고하고 생명력 있는 사회, 전도양양한 불패의 사회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며 장군님의 뜻과 의도를 받드는 길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는것이 전 사회적인 풍모로 되고 있으며 누구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뜨거운 동지애로 뭉쳐 강성대국건설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나가고 있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령도자와 인민의 이런 혈연적련계와 고상한 풍모는 우리 사회의 정신도덕적높이를 보여 주는것으로서 오직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 질수 있는 긍지 높은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혁명적대풍모는 누구나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 없는 그리움을 안고 살며 투쟁하고 있는데서 발현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자나깨나 위대한 장군님만을 생각하고 장군님을 자기들의 초소와 일터에 모실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새 세기의 진군길을 걸어 나가고 있다.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선시찰소식을 들을 때면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세워 보는것이 우리 병사들의 마음이며 꿈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고도 정말 오실것만 같아 자리를 차고 일어 나 령길을 쓸고 또 쓰는것이 우리 인민들의 마음이다.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삶의 태양으로, 친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장군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순결한 량심과 의리가 차넘치고 있다.누구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의 안녕만을 바라며 살며 일해 나가기에 오늘 온 나라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가 전 인민적인 송가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 본적이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한없이 진실하고 뜨거운 혈연적관계의 최고정화이다.

우리 사회의 혁명적대풍모는 위대한 령도자를 받드는 길에서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 지고 있는데서 숭고하게 발현되고 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관계는 군대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인민은 군대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 주는 친혈육과 같은 관계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가 빛나게 실현되는 가장 혁명적인 관계이다.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온 사회가 숨 쉬고 군대와 인민이 일심일체가 되여 조국수호도 강성대국건설도 함께 해나가는것이 위대한 령도자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선군시대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다.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뜻이 일치하기에 인민군대의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이 우리 사회에 흘러 들어 누구나 선군시대의 새로운 도덕과 문화, 정서와 랑만으로 살며 투쟁하고 있다.옹군애민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원쑤도 덤벼 들수 없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가 절대로 발붙일수 없다.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중심으로 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야말로 온 사회를 끝 없는 활력에 넘치게 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떠밀어 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혁명적대풍모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미풍이 끊임없이 꽃 펴나고 있는데서 높이 발현되고 있다.

준엄한 시련을 헤치는 나날에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의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관계가 더없이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다.자기는 쓰러지면서도 동지들을 위해 한줌의 낟알을 남겨 주며 순직한 동지들의 자식들을 저마다 맡아 돌보아 주는 눈물겨운 소행은 비단 라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서만 찾아 볼수 있는것이 아니다.사회주의건설의 돌격로를 열어 나가는 전투장에서 불구가 된 동지의 한생의 길동무가 되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풍모는 선군시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세계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실천적사업성과로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려는 티없이 깨끗한 마음과 마음들이 합쳐 진 뜨거운 인간사랑, 동지애의 화원이 있기에 조국의 북변 대홍단과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전투장에서, 개천 – 태성호 물길공사장과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의 숭고한 모범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우리 인민은 원래 자기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훌륭한 인민이다.우리 인민의 그 숭고하고 고결한 풍모가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이는 길에서 더 높이 발휘되고 있는것은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 운명의 수호자이시고 삶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더욱 절감하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류례 없는 시련을 단신으로 헤치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을 생사기로에서 구원해 주신 위대한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위대한 장군님께서 뜨거운 동지애, 인민애를 지니시고 우리 혁명전사 한사람, 한사람과 매 가정에 이르기까지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을 걸음걸음 따르며 끝 없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것이다.우리의 현실은 한없이 숭고한 덕망과 동지애를 지니시고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 주는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실 때에만 사회의 풍모가 숭고한 경지에 올라 서고 평범한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되게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신 우리 사회의 대풍모가 활짝 꽃 펴나는것은 새 세기 강성대국의 전도를 확고히 내다볼수 있게 하는 긍지 높은 일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를 고립압살하고 우리의 진군을 가로 막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사상과 사상의 대결이며 도덕과 도덕의 대결이다.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군사적침략과 경제봉쇄를 감행하고 썩어 빠진 사상과 문화로 우리 인민을 정신도덕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하여도 우리 사회는 끄떡 없다.사상과 정신이 위대하고 도덕이 비길데없이 숭고하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의 그 어떤 악랄한 책동도 짓부시며 강성대국의 희망찬 미래에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풍모야말로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고 원자탄으로도 당해 낼수 없는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위력한 무기이다.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최후승리와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이 위대한 혁명적대풍모를 더욱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승리의 기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오늘의 보람찬 삶과 행복이 있고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찬란한 래일이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세계진보적인류가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는 장군님의 참된 혁명전사, 제자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사상과 령도업적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언제나 장군님과 뜻과 운명을 함께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와 높은 실적으로 장군님을 받들어 나가는 견결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내일 계속됩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계승과 새로운 발전을 위한 투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강좌 제163회
학사 김장호선생 / 주체 91년 2월 2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90년대 재일조선인운동의 계승과 그 새로운 발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주체의 기치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재일조선인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기발전의 새로운 전화기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 조성된 정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측면으로 볼때 재일동포들 속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조국이 광복된 후 근 반세기가 흐르다나니 지난 날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일본에 끌려가 식민지 노예의 쓰라린 생활을 직접 체험한 첫 세대들은 줄어들고 3세대 4세대들이 동포구성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담당자로 등장하게 되였습니다. 다른 한측면에서 보면 이시기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을 거세하고 그들을 애국의 길에서 떼내려는 일본반동들의 모략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반동들은 혁명의 세대가 교체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젊은 세대들을 독려시키고 사상적으로 변질시켜 혁명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 별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현실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세대 동포들과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나아가서 총련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제나 총련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단신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시는 불면불휴의 노고속에서도 역사적 수완과 강령적 가르치심으로 총련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현명한 영도로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그럼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서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5월 24일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역사적 서한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총련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는대로 해나가는 것을 총련사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하시고 재일조선인 운동의 기본사명과 총련이 투쟁강령으로 삼아야할 중심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숭고한 민족적 애국운동이며 그 발생 근원과 투쟁환경의 특성으로 하여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 교포운동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총련이 투쟁강령으로 삼아야할 중심과업들도 밝혀주시었습니다. 중심과업은 제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이익,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며 민족자주의식을 높여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것이며, 사회주의 조국을 견결히 옹호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특색있게 이바지하는 것이며, 총련이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맞게 자기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밑에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는 것입니다.

자주적인 애국운동의 4대 중심과업이 밝혀져 있는 이 역사적 서한은 엄혹한 시련을 겪고 있던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굴함없는 전진과 승리의 앞길로 힘있게 이끌어준 강령적 지침이었으며 위대한 애국강령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총련이 틀어지고 나가야할 강령적 지침을 밝혀 주시었을 뿐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련의 각급조직들이 주체의 사상체계와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총련을 주체적인 애국조직으로 강화발전 시키는 것은 재일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관건적 고리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년일군들과 동포대중들 속에서 선전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의 신념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해외공민으로 참다운 애국자로 준비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총련은 이시기 동포대중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따라 배우고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운명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는 선전교양사업을 실속있고 폭넓게 벌려나갔습니다. 또한 새세대들 속에서 자기 수령, 자기 조국에 대한 신념과 청년애국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애국전통의 계승자, 새역사의 창조자로 된 사명감과 포부를 안겨주는 사업을 다양하고 참신하게 벌렸습니다. 이 과정에 청년일꾼들과 동포들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믿고 따르면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도도 양양하다는 신념이 확고히 차념치게 되였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사상적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총련의 간부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 속에서 우리당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는 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총련은 우선 각급 조직안에 조직적 골간을 이루는 핵심진지를 더욱 강화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이에서 이룩하며 그와 어긋나는 일에서는 추호의 타협없이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대오의 정치사상적 순결성을 고수해 나갔습니다.

총련은 또한 지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음으로써 애국운동의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지역적 역할을 더욱 높이며 새세대들이 애국운동을 활성화하는데서 주인으로써의 역할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일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토대를 튼튼히 닦아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재일조선동포들을 넓은 한 품에 안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그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전통을 고수하고 민족적 애국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재일조선동포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시며 고난의 행군길을 헤치시던 나날에 총련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족이 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온 나라가 전대미문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엄혹한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련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것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와 전통인데 어떤일이 있어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령님께서 계실때와 꼭같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라고 결연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것을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지키고 수령님께 의리와 도리를 다해나가는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신 경애하는 장군님.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숭고한 의지에 떠받들려 고난의 시기에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안겨졌던 것입니다. 재일교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오늘에도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감동적인 화폭을 새기며 재일동포들은 오늘도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를 부르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1절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 많고많은 귀한 돈을
바다넘어 저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오늘 우리 제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고 일본땅 곳곳에서 위대한 수령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 충성의 맹세, 애국의 의지를 담아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강성대국을 향해나가는 조국의 장엄한 진군에 발걸음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꿋꿋이 지키고 동포들의 생활과 권리를 옹호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총련은 민족성 고수문제를 동포사회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동화, 이른바 귀화를 위해 벌어지는 참정권놀음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였으며 출판보도 수단들과 문학예술단체들을 통하여 제일교포들의 민족성 배양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특히 민족교육사업에 큰힘을 넣어 재일교포자녀들의 중등교육실시 50돐 조선대학교 창립 40돐을 계기로 민족교육운동을 전동포적으로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일동포들의 권리옹호와 생활상 문제해결에도 큰힘을 넣어 적극 추진시켜 나갔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총련이 조국의 통일과 융성번영을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총련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조국통일방침을 깊이 해설선전하며 광범한 재일동포들이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90(2001)년에 진행된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총련에서는 동포들속에 6.15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해설선전하고 민단동포들을 포함한 각계층동포들과의 단합을 이룩하여 통일운동세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였습니다. 총련과 민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통일행사들에서 동포들은 서로서로 손을 잡고 통일부강조국은 우리들의 미래이다. 우리의 공통점인 민족성을 3세대, 4세대들에게 이어주어 하나로 단결 화합해 나가자!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자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해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특히 총련은 주체90(2001)년 5월에 진행된 제19차 전체대회 이후 21세기의 주인인 청년들을 사랑하자! 애국애족의 업적을 이어 21세기 재일조선인 운동의 새역사를 창조하자는 구호를 높이들고 조총과 청년상공회를 비롯한 새세대 청년단체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조국의 강성대국건설에 물질기술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동포적인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오늘 재일조선인 운동은 새시대의 요구와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애국의 전통을 확고히 계승하고 주체의 한길따라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정부는 미국에 강력 항의하라

전쟁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 방한저지와 GM 규탄 반미결의대회

≪악의 축≫ 발언 경악.. 침묵땐 전쟁정책 용인하는 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이러한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 자세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 발언과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입장 되풀이일 뿐≫ 내지는 ≪대화노력 운운≫으로, 상황이 그다지 긴장되지 않은 듯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 군사주의 노선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이자 최대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의 전쟁 정책에 휘말려들어가는 순간, 한반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폭력적 대결상태로 인한 희생제물이 되고 만다.

다시 강조하여 언급하건대, 오늘날 우리의 민족 안보는 다른 어디에서가 아니라 이른바 혈맹이라는 바로 미국에 의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 부시정권의 극단적 대북 적대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끊임없이 ≪조율 당하는≫ 전리품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더 이상 조율당할 수 없다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두 개의 개념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차대전 과정에서 나치 독일, 이태리 파시즘, 일본 제국주의의 동맹을 주축국(Axis)이라고 불렀던 것과, 레이건 대통령이 구 소련을 ≪악의 제국(Empire of Evil)≫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둘 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뜻과, 이들을 상대하는 선(善)의 대표자로서의 미국이 유지하려는 세계적 패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표현은 과거 이들 나라를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했던 것을 보다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부시정권이 이들 나라와의 대결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 강화가 강조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국정 연설 대부분이 미국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가, 이런 미국의 안보가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들 ≪악의 축≫이다, 그런 고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불량국가≫라는 과거의 개념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로서도 필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국방예산이 지난 20년이래 최대의 규모인 480억 달러이다. 이와 함께 ≪조국안보국≫의 예산도 19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군사와 정보, 경찰 기능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것으로써,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전쟁국가의 체제를 확실히 갖추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부시 대통령이 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 등을 거론하자 연설을 듣고 있던 의회의 정치인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한 모습이었다. 의회가 부시 정권의 이러한 군사주의 노선과 전쟁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실로 우리로서는 버거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의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이 아니라 군사주의적 접근을 하겠다는 미국 앞에서 우리는 아예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 우선 정책의 근간에는 사실상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미국의 패권질서가 동요할 기미를 보이면서 미국의 지배층들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 위기의 돌파를 군사주의 노선 선택으로 풀려고 해온 것이다. 국제적인 반발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미사일 방어망 추진의 강행은 그러한 움직임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엔론 스캔들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터졌다. 이것은 그 동안 미국이 주도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시스템의 모순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하겠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자본주의 주도력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뉴욕 맨해턴에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열리게 되는 ≪세계경제 회의(World Economic Forum)≫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렇지만, 이 회의를 반대하는 반 세계화 운동세력은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세계화는 결국 군사적 폭력과 경제적 빈곤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반세계화 운동세력은 만일 이 회의가 테러 전쟁 직후 그리고 지난해에 열렸다면 사태는 달랐겠지만 지금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와 엔론사 스캔들, 그리고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대한 비판이 있고,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적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거론하는 일이 훨씬 용이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제적 입지는 미국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한반도 전체의 평화 열기 과시해야

따라서,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선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명백한 표현으로 외교적 이견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우리의 태도 표명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지를 밝히는 용기 없이 민족의 생명은 지켜낼 수 없으며, 민족의 미래를 폐허로 만들 수 있는 미국의 전쟁정책과 대북 적대정책을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야만적인 경제봉쇄를 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자체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온갖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의 오만과 일방적 패권주의가 한반도에서는 반드시 무력(無力)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살길을 뚫어내는 근본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월드컵≫ 행사와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한반도 전체에 평화의 제전이 펼쳐지는 것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 남과 북이 활발한 접촉과 교류, 협력을 이룩하게 되면 상황은 변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단결을 통해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질 것이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정책에 압도당하지 않는 돌파구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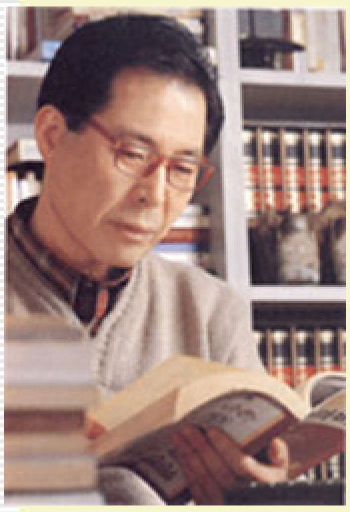
이회창 총재의 사대주의,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사고 모두 격파할 수 있어야

실로 미국의 전쟁 정책 집행자들에게 ≪충성서약≫하듯 외교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사대주의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우리의 자세를 맞추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인 듯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 같은 반민족적 사고를 격파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도 절실한 현실이다. 이들은 민족의 안위와 인류의 평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식민지 정치의 대리인이자 식민지 언론의 본영(本營)일 뿐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미국 방문과정에서 자신이 미국의 전쟁정책과 군사주의 노선을 가장 충실하게 대리할 수 있는 한반도 남쪽 지역의 최고 적임자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진력을 다했다. 이것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깊게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경계되는 바이다.

오늘날 진정 인류에게 전쟁과 빈곤의 재앙을 몰아오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 민족의 선택은 너무도 자명해질 것이다. 반 외세 자주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반 패권적 민족주의는 결코 낡은 수구적 개념이 아니며, 인류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역사적 양심이라는 점을 우리는 투철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민웅 기자
오마이뉴스 2002/02/01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서울신문(현 대한매일)의 파리특파원으로 활동하다가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97년 ≪국민승리 21≫이라는 진보정당의 모태로 15대 대선에 출마 30여만 표를 얻었다. 그 힘으로 민주노동당을 창당, 민주노동당 대표로 진보정당 운동을 선도해 왔고, 16대 총선에서는 창원에서 1위에 5150표 뒤진 36, 579표를 득표해 2위를 차지해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현재에도 꾸준한 지역활동으로 현역의원이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권영길 대표는 현재 진보진영 안팎의 통합 요구를 모아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을 추진중이다. 전국연합 · 사회당 등 사회단체와의 통합, 민주노총 · 자치연대 · 한국노총 · 시민단체 등과는 지방선거에서 공동대응을 모색 중이다. 특히, 지난 10.25 재보선에서 따로 출마했던 사회당과의 통합이 진보진영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좁쌀 만한 땅을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나눠 가지려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듯이 극히 사소한 차이에서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제도권 정당의 정쟁 마냥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진보정당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이 극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과 창원시장 선거에서 당선을 확신하고 있어 민주노동당 열풍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1. 지난해 대표님께서 하신 민생순회 국토 대장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과는 있었습니까?

성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완전히 등을 돌렸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을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 하면 ≪정치권은 도둑놈≫이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실제적인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자≫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해 6개월 동안 공장, 사무실, 시장, 거리, 대학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민주노동당이 대안 정치세력이 될 수 있겠다.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 · 마산 · 진주 · 광주 · 전주 · 군산 · 대구 등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돌고 도시와 가까운 농촌 지역도 돌아다녔습니다.

2. 언론에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생활입법 차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민노당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한 걸로 압니다.

사실 처음에는 상인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무시를 당했습니다. 상인들은 민주노동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내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을 펴겠다≫ 하니까 ≪원내 정당도 없는 정당이 무슨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졌고, 국회의원들은 ≪민주노동당이 뭐 그런 짓 하느냐≫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만 저희들의 2년여에 걸쳐 상가 방문, 국회의원 설득,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드디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10만 명이 넘은 상인들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또 국회 앞에서 두 차례의 상인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대회는 아마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상인들의 대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운동이 도외시되거나 배제되거나 무시당했습니다만 마침내 상인들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었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 힘으로 모법(母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홈페이지 에 게재된 인터뷰기사를 8회에 나누어 연재해 드립니다)

BBC방송, 미군의 양민학살 보도

한국언론은 지금이라도 모든 학살 파헤쳐야

≪중앙일보≫가 포항 여남동 송골계곡의 민간인학살사건을 1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보수언론인 ≪중앙일보≫가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을 이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신문은 ≪포항 여남동 ≪제2의 노근리≫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쟁 중 경북 포항의 한 해변에 모여 있던 피란민들이 미국 해군의 무차별 함포 사격으로 집단 학살된 사실이 ≪노근리 사건≫에 이어 50년만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의 이 보도 이후 포항 현지의 유족들은 모처럼 수많은 신문방송사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이날 사회면 머릿기사는 이미 6일전인 지난달 26일 지역일간지인 ≪경북일보≫에 사회면 머릿기사로 보도된 내용이다. ≪경북일보≫는 99년 11월에도 이 내용을 역시 비중있게 보도한 바 있다.

그 후 유족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고,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양심적인 인사들과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원회 및 전민특위 등 인권단체에서도 수차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중앙일보≫의 표현대로 ≪50년만에 드러나 충격≫을 줄만한 미군의 민간인 학살사건은 ≪노근리≫와 ≪포항 송골계곡≫뿐 아니라, 이미 정부에 민원이 접수된 사건만 해도 60여건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역시 ≪중앙일보≫식 표현대로 한다면 ≪제2의 노근리≫뿐 아니라 ≪제60의 노근리≫까지 줄줄이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영국 BBC 다큐에서 역시 비중있게 다뤄질 마산시 진전면 곡안리 재실(齋室) 민간인학살사건도 60여건의 사건 중 하나일 따름이다. 또한 BBC는 이 뿐만 아니라 경남 의령과 함안의 민간인학살사건도 취재했었다.

기자는 지난 28일 ≪경남도민일보≫와 ≪오마이뉴스≫에서 이른바 중앙일간지의 이런 보도를 ≪서방언론에 껌벅 죽는 한국언론의 사대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한편으로는 반갑다. BBC가 고맙기도 하다. AP통신이 ≪노근리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는 꿈적도 하지 않던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AP의 보도 이후 너도나도 취재경쟁에 나섰던 것처럼, 이번 BBC의 다큐멘터리 방영도 그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또 걱정스러운 것은 AP통신 보도 당시 한국언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BBC에 거론된 사건만을 집중 부각하는 대신 다른 사건에 대해선 또다시 시치미를 뚝 떼고 침묵을 지키는 이중적인 태도다.

또한 미군이 자행한 민간인학살보다 더 어마어마한 보도연맹원 학살사건도 있다. 전국에서 최소한 10만명, 최대 30만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 또한 보수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BBC의 다큐 방영을 통해 한국언론이 제발 ≪사대주의 근성≫에서 벗어나 서방언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기 바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아직 외국언론이나 한국의 주류언론에 의해 본격적인 조명을 받지 못한 수많은 민간인학살사건들이 샅샅이 파헤쳐지기를 기대한다.

김주완 기자
오마이뉴스 2002/02/01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개최 합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키로 남북 실무대표단이 합의했다.

≪2002 설맞이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준비위) 관계자에 따르면 남측 실무대표단 5인은 북측과의 회담을 마치고 3일 오후 귀환하여 이같이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위 관계자에 의하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행사 명칭과 장소, 기간을 확정하고 남북 대표단 각 100명씩과 남측 참관단 250명 등 총 450명 규모로 이 행사를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남측 대표단과 참관단은 오는 19일 속초항에서 설봉호 편을 이용해 금강산으로 출발해 다시 설봉호 편으로 21일 귀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북측 대표단은 북측이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전(4.29-6.29)과 관련해 남측 준비위와 협력해나가면서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북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담에 참석한 남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준비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로써 작년 8.15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북간 민간교류가 재개됨으로써 올 한해 남북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무회담에 북측에서는 허혁필(북측 민화협 부회장) 단장을 비롯해서 류완철(민화협 사무소 부소장), 한일선(조선종교인협의회 사무국장), 리창덕(범민련 북측본부 사무국 과장) 등이 참석했다.

송정미 기자
통일뉴스 2002/02/03

전위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 (1)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한민전은 최근년에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각의 비판처럼 ≪지역통일전선≫ 개념은 전위당의 견해와 전혀 무관한 개념, 일부에서 만들어낸 자의적 개념이 아닌 것이다. 한민전은 ≪구국의 소리 방송≫의 ≪변혁의 진로≫에서 ≪지역통일전선은 지역변혁을 수행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각당, 각파, 각계층 애국적 민주역량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 이번엔 분열된 나라에서의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열된 나라에서의 통일전선은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의 두 형태가 있는데요. 전국적 민족통일전선은 조국통일을 위해 나라의 전지역과 전 민족을 포괄한 애국역량의 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지역통일전선은 지역 변혁을 수행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각당 각파 각계층 애국적 민주역량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역통일전선 문제는 지역변혁을 수행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제반 민주주의개혁이 실시되고 각당 각파 각계층이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되어 변혁운동을 진전시키고 조국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선 바로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동세력이 집권해서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위한 대중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민주역량의 주권전취와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으로 제기 됩니다.

이 두 형태의 통일전선은 다같이 조국통일에 공통하지만 상호 상대적인 독자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이 조국통일과 전국변혁의 승리를 위한 전략의 한 고리라면 지역통일전선의 상대적 독자성을 띤 지역변혁의 전략의 한 고리를 제기되고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은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연합행태에 있어서 전자는 나라의 자주적 통일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전국의 모든 애국역량의 민족적 연합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후자는 해당 지역사회의 변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계층의 정치적 동맹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또한 그 기본강령에 있어서 전자는 전 민족적인 요구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되며 후자는 해당 지역 변혁의 당면과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이 전자는 ...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이루어지며 후자는 해당 지역 노동자계급의 당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또 연합대상에 있어서도 전자는 진심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기만 하면 어느 계급 계층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연합하며 지어 집권상층과도 연합을 실현하지만 후자는 지역변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급 계층과만 연합하며 적대계급과 집권층은 투쟁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조직형태에 있어서 전자는 정당 사회 단체의 연합이나 단일조직형태, 집권상층과의 통일전선 형태도 취할 수 있으나 후자는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합이나 단일조직형태는 취할 수 있어도 집권상층과의 통일전선형태는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집권상층과의 통일전선은 연방형식의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가장 철저히 실현될 수 있는데요. 이 통일전선 형태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국가적 연합이 아니라, 한 민족 국가간의 두 지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권연합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성의 통일전선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집권상층과의 통일전선에는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적 이념, 민족문제 해결의 게재만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쌍방을 결합시키는 최대의 공약수로 단결과 협작의 기본이 된다 하겠습니다.≫(통일전선 운동의 방법과 통일전선의 유형과 형태)

필자는 최성원동지가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한민전의 견해를 알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일한 맥락의 견해라는 점은 확신한다.

한민전의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는 6.15공동선언 이전에 발표된 견해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을 강령으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없었다. 최성원동지는 자신의 두 논문(≪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2001.5),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2001.11.6))을 통하여 6.15공동선언을 강령으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이다.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민족민주전선 단독으로가 아니라 남측의 통일전선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통일전선전략과 그 운동력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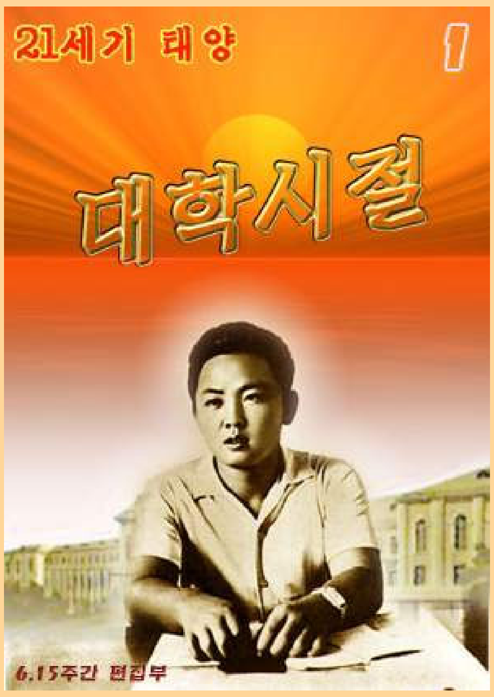
≪위에서 이미 해설한 대로, 미군 철거투쟁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함께 전개하고 있

➡

광고

PDF 총서

21세기 태양



노작
3 조선아 너를 빛내리

김일성 종합대학
5 김일성 종합대학
8 용남산마루에서의 맹세
11 창조적인 학습기풍
14 만페이지읽기운동
17 혁명적 세계관
20 혁명적 조직생활
23 이신작칙 1
26 이신작칙 2
29 이신작칙 3
32 대학교육에서의 주체확립
35 주체의 정치경제학
39 역사연구에서의 주체적 방법론
41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의 부당성
44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형성
47 대학시절의 사상이론활동
49 사상의식 관련 명언
53 수령론확립
55 혁명적 수령관 관련 명언
58 주체의 정치학설
61 주체의 혁명전통이론
64 민족어이론
67 주체의 군사사상의 원리
70 주체의 군사사상의 독창성
74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77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
80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83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86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보좌
90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
93 사상이론적 자질
96 영도적 수완
99 문무겸비
102 고매한 덕성
105 대학시절 종합 -질의응답
108 김일성 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 4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PDF편집물 21세기 태양 총서.
인터넷 구국전선(ndfsk.dyn.to)과 전국연합 각종자료게시판 (www.nadrk.org), 민주노동당 기타자료실 (www.kdlp.org)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만 실제로는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에 의해서 철거하게 될 것이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몫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남측에서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이 된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려면 우선 통일전선전략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전선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구축되는 지역통일전선이다.≫

≪남측의 통일전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 그것이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르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을 말한다. 이것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지역통일전

執굼 구축되어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역통일전선이다.≫

≪지역통일전선 안에서 친미예속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높은 수위의 주장을 한다든지,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은 교정되어야 한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북측 정치역량이 구축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의 대상이므로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 정권을 자기의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측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평양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전환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전면에 배치하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다음은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혁명정세, 통일정세 앞에 전개되는 전선은 두 개의 전선입니다. 그 하나는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하고 있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에 따라 각계각층 근로대중이 결집하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 완결된 민족민주전선체를 결성하지 못한 미완의 민족민주전선입니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전선은 남측의 민족민주전선과 전민족적 범위의 민족통일전선 두 개의 전선밖에 없습니다. ≫

≪지금 우리 남측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면서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새로운 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족통일전선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민족적 범위의 통일전선이므로, 남측이라는 지역단위에서 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도 역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 따르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은 마땅히 반미자주화를 강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위업은 반미자주화운동을 통하여 실현되어 가는 위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성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역통일전선도 반미자주화를 자기의 강령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들이 이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한 것은, 반미자주화의 강령 대신에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전술적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이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여 형성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 전선 안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주동적으로 작용하여 지역통일전선이 장차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승 ·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지역통일전선에 관하여 우리들이 설명하였던 내용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운동의 전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과 전술은 조성된 혁명정세와 통일정세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전략과 전술, 조국통일운동의 전략과 전술과 밀접하게 결부되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반미자주화의 과업은 지금 주한미군 철수운동으로 수행되고 있는 데, 현 단계에서는 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이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추진하는 전선으로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추진한다면 그 전선에 포괄되는 역량의 범위는 민족민주운동의 범위로 좁아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이 당면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통일전선은 남측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내걸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기치를 들고나서되 차츰 반미자주화의 기치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술적 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동지는 ≪6.15의 호정세 속에서 반미자주화노선을 접고 부차적인 요구와 투쟁계기를 앞세울 대신, 반미자주화의 주공방향을 전면에 내걸고 모든 요구와 계기를 반미자주화로 집약시켜내는 것이 응당한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주장이 오늘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요구이지, 지역통일전선이 당면하고 있는 요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통일전선이 민족자주의 과업을 명시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선으로 형성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반미자주화의 전략적 과업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지역통일전선이 반미구국통일전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술적 조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과도한 문제설정입니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 사업은 누가 책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책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거듭 밝히지만,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이지, 남측 지역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선이 아닙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와 남측 지역혁명의 임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내일 계속됩니다)

조국통일3대헌장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0대 시정방침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 6차 대회

4,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 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계속됩니다)